

## 日・몽골 EPA/FTA 합의, 자원개발 협력 강화

- 일본은 몽골과의 EPA/FTA 협상 내용을 타협하고 협정 체결에 합의, 몽골로서는 최초의 경제연계협정 체결국이 됨
-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협력이 양국 간 강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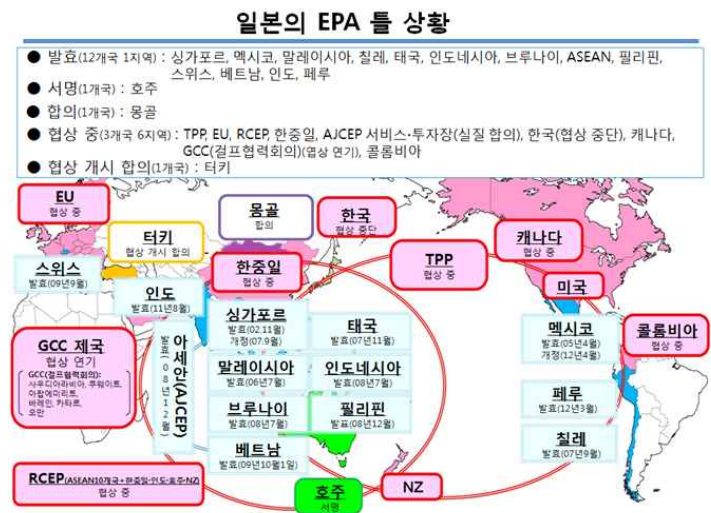
### □ 日·몽골 EPA/FTA 타협

- 일본과 몽골정부는 7월 22일 정상회담을 열어 日·몽골 EPA/FTA에 대해 합의, 일본에게는 15번째의 경제연계협정국이 되며 몽골에게는 첫 EPA/FTA가 되었으며 빠르면 연내에 서명할 예정

- 일본정부와 몽골정부는 2009년 12월 양국 관민 공동연구회의 창설에 합의

- '10년 6월에 제1차 회의를 시작, '11년 3월에 공동연구 보고서를 제출

- '12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총 7차에 걸쳐 내용을 협의



자료 : 경제산업성

- 일본과 몽골의 '13년 무역액은 약 312억 엔으로 일본의 對몽골 수출이 293억 엔, 몽골의 對日 수출이 19억 엔으로 일본이 대폭 무역흑자를 기록

### □ 합의 내용

- 일본에서 몽골에 대해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품목(무세수출)의 비율이 현재 수출액의 1% 미만에서 협정 발효 후 10년간으로 약 96%까지 확대

-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력의 4500cc 이하의 완성차(제조한지 0~3년)에 대한 관세 5%가 즉시 철폐, 다른 자동차도 차종에 따라 10년간에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합의
- 중고차(제조한지 10년 이상)를 포함한 자동차는 일본의 對몽골 수출액의 약 65%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상 초기부터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 왔음
- 관세 외 분야에서도 석탄 등 자원·에너지의 안정 공급에 이바지하는 물 정비, 투자·서비스의 자유화, 전자상거래의 물 정비, 지적재산 보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달성

< 일본기업이 참가하는 몽골 프로젝트 >

- 특히 투자 분야에서는 몽골 시장의 자원·에너지 분야에 대한 일본기업의 참입 시에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·최혜국 대우가 부여됨
- \* 타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도 일본기업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
- \*\* 몽골은 석탄, 동, 레어 메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일본 상사나 에너지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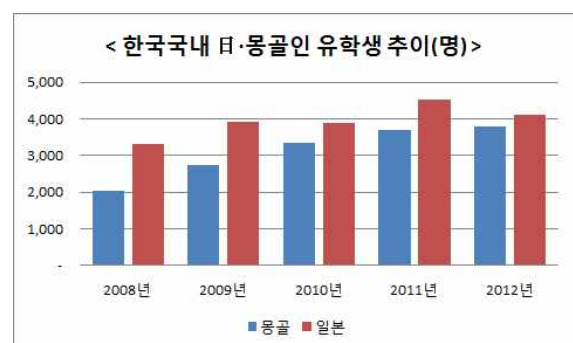
<b>[타반틀고이 탄광]</b> 미쓰이물산은 중국 기업과 협력, 이토츄상사·스미토모상사·마루베니·소지쓰는 러시아 국영철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
<b>[신국제공항]</b> 미쓰비시상사와 치요다화공건설이 500억 엔으로 주수
<b>[석탄철도]</b> 일본공영이 17억 엔으로 설계를 주수
<b>[울란바트라의 고가교 “태양교”]</b> JFE엔지니어링이 30억 엔에 주수, ‘12.10월 완성

- 일본 투자가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몽골정부와 계약한 ISDS(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)의 적용이 포함되는 등 일본 측에서 본 몽골 측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
- 일본 측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캐시미아 제품 중에서 스웨터나 코트 등에 부과되는 10~13%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제안
- 몽골이 일본에 대해 요구했던 쇠고기에 대해서는 38.5%의 관세를 유지하지만, 모든 종류의 냉동고기에 관해서는 협정 발효 5년 후에 관세 인하에 대해 다시 협의할 예정
- 육포나 통조림 등 쇠고기 가공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 양에 한하여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시스템을 도입
- \* 몽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은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지만 위생식물검역조치(SPS)를 강화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단계적 관세 인하를 인정

- 한편 일본은 자국의 중요 품목인 쌀, 밀, 설탕,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음

## □ 시사점

- 몽골 입장에서 일본과의 EPA/FTA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, 교류 촉진이 목적
  - 몽골 수출품의 90%는 석탄 등 광물자원이며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90% 이상, 한편 일본은 수입 석탄의 60%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처 및 조달처를 늘리고 싶은 일본과 몽골의 생각이 일치
  - 일본으로서는 몽골이 북한과 국교를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관계 외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, 북핵 문제 등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
  - 몽골정부에는 어학연수로 일본어를 선택한 일본학과가 약 400명, 간호야그 광업 부 장관도 일본에서 학부를 졸업했으며 지일(知日)파가 많음
-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른 '08년부터 몽골과의 FTA 관련 공동연구를 시작, '11년에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음
  -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자원개발은 중요한 이슈임으로 동남아 외의 일본과의 제3국 공동 진출 대상국으로서 몽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  -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몽골 학생 수는 일본 학생 수와 차이가 없는 수이기 때문에 몽골정부나 관계자 중 한국학과가 증가하고 있을 것이며 그들을 활용한 對 몽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

자료 : 교육부

## 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 보도자료(2014.7.22), 닛케이신문(2013.7.26, 2014.7.22), 산케이신문(2014.7.22), 아사히신문(2014.7.22)